

박정수, 손녀 위해 통 큰 결제…"짜짜한 할머니 아냐"

등록 2026.05.14 11:53:55



[서울=뉴시스] 박정수.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박정수가 손녀들을 위해 할머니의 씬씀이를 자랑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웬만해선 정수를 막을 수 없다'에는 '박정수가 쓴다! 할머니 카드 믿고 장바구니 풀소유 실천한 손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박정수가 첫째 딸, 손녀들과 함께 서울 동대문 종합상가를 찾아 쇼핑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정수는 손녀들과 키링, 볼펜 등 다양한 소품과 화장품 쇼핑을 즐겼다.

그는 손녀들에게 "더 사도 돼", "돈 쓰러 가자", "할머니가 사줄게"라며 아낌없는 모습을 보였다.

계산을 앞두고 박정수는 "할머니 전세금 빼기 전에 그만해"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손녀들의 쇼핑을 끝까지 응원했다.

손녀들이 "40만원 넘으면 할머니 화내실 것 같다"며 걱정하자 그는 "할머니 그렇게 짜짜한 할머니 아니다"라며 쿨하게 카드를 건넸다.

최종 결제 금액은 44만2870원이 나왔다. 예상보다 큰 금액에도 박정수는 "너희들 만나서 이렇게 사주니까 기분이 좋다. 그동안 바쁘다고 할머니 안 만나주더니 오늘은 너무 좋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정수는 1975년 결혼해 사업가와 결혼해 두 자녀를 얻었지만 1997년 이혼했다. 현재 배우 정경호의 부친인 정을영 PD와 사

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